

#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지역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전북교육청, '2026 제1차 교육과정위' 열고  
초·중·고교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2026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 2026년 1월 21일)를 반영해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현행화하고 적용 시기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 2026년 1월 21일)을 반영해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현행화하고 적용 시기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은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사항을 추가 반영해 법적 근거와 적용 시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이전 고시의 폐지 시기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과정 간 체계를 일치시켰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5~6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학교자율시간의 학년군별 확보 시간을 명시하고, 교육부 용어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했다.

이로써 초등학교 전 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체계에 맞춰 목차와 내용을 재구성하고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부록 영역의 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의 개정 반영이 없는 만큼 현행 유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1·2학년의 적용으로 변경하는 최소한의 개정으로 학교를 밀착지원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고시에 따라 학점 이수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기 간 편성 학점의 차이를 명료화했으며, 동일 학년

도 입학생의 동일 과목에 대한 동일 이수 학점 배당 기준을 신설했다.

이어 대안교육 특성고등학교의 국제 공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문 교과 필수 이수 학점 기준을 마련하고, 특수목적고의 체육·예술 계열 실기·실습 과목 편성 학점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학점 배당 최종안의 제출 시기를 10월 말로 앞당겼다.

전북교육청은 개정 교육과정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고시하고 고시 자료 보급 및 공유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임 교육감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지역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학교가 학생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2026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전북교육청,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해임하라”

도내 시민단체·학부모들, 부당 인사·보복성 감사 의혹 규탄

전주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완산학원 임시이사회의 부당 인사와 보복성 감사 의혹을 규탄하며 전북교육청의 해임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완산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과 완산중학교 학부모회, 전북지역공동체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전주시 완산중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 인사를 일삼는 임시이사회를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임시이사회가 공금 횡령 교사의 교장 자격연수 추천, 비리 연루 교사에 대한 4억9,000만원 규모의 국민 세금 임금 보전, 인사위원회 결렬 무시 전보 강행, 표적 감사와 징계 압박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학교 회계 공금을 횡령해 징계를 받은 교사를 2026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것은 부적

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횡령 교사를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적 빈틈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에 해당 추천을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승진 대가로 금품을 상당한 교사가 해임이 아닌 복직 처리되면서, 임금 보전에 국민 세금 4억9,000만원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비리 교사의 임금 보전에 세금이 쓰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책임이 임시이사회에 있다면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산중학교 인사위원회가 전원 합의로 부결한 교사 정보인을 임시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학교장 제정 없이 특정 교사 정보를 추진한 것은 사립학교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부당 정보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보 부결 이후 해당 교사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징계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임시이사회 해임, 교장 자격연수 추천 반려, 관리자 임용 제도 개선 임금 보전의 적법성 검증 및 구상권 행사 임시이사장 수당 지급 여부 공개 등을 요구했다.

완산학원은 2019년 설립자의 공금 횡령과 뇌물수수, 부정 채용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이후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임시이사회가 과거 비리 사화과 다르지 않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 도내 대학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

## “더 큰 세상을 향한 힘찬 도전 기원”

우석대,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총 1098명에 학위 수여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24일 전주캠퍼스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1,09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창훈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을 비롯해 윤희태 완주군수, 조준모 총동문회장 박희대 제7공수특전여단장, 김경태 제35보병사단 작전부사단장 박준현 해병대사령부 인재특과과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김성희 교무처장의 학사보고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929명, 석사 109명, 박사 60명 등 총 1,098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부에서는 강찬규(호텔외식조리학과) 졸업생이 이사장상을, 김태선(제약공학과) 졸업생이 총장상을 수상했다. 대학원에서는 리현평(조경학과) 박사가 이사장상을 받았으며, 상 니엔재(경영학과) 박사 등 6명이 총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완주군수상과 해병대사령관상, 제35보병사단장상, 제7공수특전여단장상, 대학원장상, 총동문회장상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서창훈 이사장은 "졸업생들의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학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세상에서 한창 도전할 것"이라며 "이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노준 총장은 "심취감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졸업생들의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우석대학교는 언제나 든든한 모교로서 졸업생들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우석대학교가 24일 전주캠퍼스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1,09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 단안 RGB 카메라만으로 3차원 공간지도 구축 전북대 조형기 교수 연구팀, ICRA 2026에 논문 최종 채택

전북대학교 조형기 교수(공대 전자공학부, AI Robotics Lab) 연구팀의 논문이 로봇공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 대회인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ICRA 2026)에 최종 채택됐다.

ICRA는 로봇공학 및 자율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평가받는다. 학회는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Society가 주관하며, 올해 6월 1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논문 제목은 'SC-VLMs: Depth-Free Visual-Language Mapping via Scene Coordinate Regression'이다. 연구팀은 기존 Visual-Language Map 방식이 요구하던 고가의 깊이(depth) 센서 없이, 단안 RGB 카메라만으로 3차원 공간지도와 언어적 의미 정보를 동시에 구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연구는 Scene Coordinate Regression(SCR)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영상으로부터 직접 3차원 좌표를 예측하고, 이를 대규모 언어 모델의 의미

표현과 결합함으로써 센서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로봇은 '테이블이 어디 있는가', '창문이 있는 영역을 찾아라'와 같은 자연어 질의에 기반한 공간 이해와 탐색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저비용 센서 환경에서도 고수준의 공간지능 구현이 가능함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간지능(Spatial AD)과 피지컬 AI 핵심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는 해외 로봇공학 기업과의 글로벌 공동연구로 수행됐으며,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 과제(RS-2024-00346415)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조형기 교수는 "이번 성과는 저비용 센서 환경에서도 정밀한 3차원 공간 이해가 가능함을 입증한 사례"라며 "향후 다양한 로봇 플랫폼과 연계한 자율행동 및 인간-로봇 상호작용 분야로 연구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연구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 연구는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단계 발전된 심화 과정을 구성했다. 단순한 운영 안내를 넘어 상담 및 생활지도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했다. /오상근 기자

연구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 연구는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단계 발전된 심화 과정을 구성했다. 단순한 운영 안내를 넘어 상담 및 생활지도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했다. /오상근 기자

## 국립군산대, 올 '민간주도 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국립군산대학교가 운영하는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는 24일 2026년도 '민간주도 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민간이 주도하는 과학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문화 확산과 지역과학 문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총 4개 기관을 선정해 기관·단체별 4,000만

원 이내(기관당 약 1,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둔 민간 기관·단체로 지원 분야는 △과학융합콘텐츠 △과학 소품 △찾아가는 과학관 △탐방 △일상문제 해결 △기타 등 총 6개 분야다.

접수는 공모일로부터 오는 3월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산=김민호 기자

## 올해 국제교류수업 학교 100곳으로 확대

전북교육청, 내달 5일까지 희망학교 공모... 12일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학교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언어·문화·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등을 주제로 국제교류와 해외교과가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 중심 국제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세계 시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2023년 40개교로 시작한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2024년 61개교, 2025년 86개교에서 운영했으며, 올해는 1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운영 유형은 △온라인 공동수업형 △대면수업·해외 현장체험학습형 △해외학교 초청수업형 △통합형 등 4가지로 학교 여건에 맞춰 선택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공동수업은 6차시 이상(실시간 3차시+비실시간 3차시)을 필수로 운영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현지 학교 교육과정 참여 및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심화 프로젝트 학습으로 확장한다.

특히, 시애틀·시카고·상파울루·태국 한국교육원과의 연계성 강화, 한국교육 기원 국제교류수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채택 해외학교와의 안정적인 매칭을 지원하고, 현지교육과정 참여형 대면수업, 국제 초청수업, 공동 프로젝트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국제교류수업 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3월 5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12일 발표한다.

선정된 학교에는 수업 운영비, 해외 현장체험학습비, 초청수업 운영비 등을 유형별로 차등 지원한다. /오상근 기자

## 3월은 수업·학생에 집중... 전북교육청, 교육과정 안정 기간 운영

내달 3~13일... 회의·출장 등 최소화, 교원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새 학기 시작에 맞춰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을 '신학기 교육과정 안정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학기 초 행정업무 증가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 기간에는 공문·회의·출장·학교 방문 등을 최소화해 교원과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학생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속기관은 불필요한 공문 발송을 지양하고 보고 기한을 조정하며 단순 안내 사항은 공문 게시로 대체한다.

또한 부서별 주요 기본계획은 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해 학교의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신학기 교육과정 안정 기간에는 회의와 출장도 대폭 축소된다. 각종 사업 설명회는 2월 중 사전 실시해 학교의 교육과정 수립을 돕고, 안정 기간 중에는 회의 개최를 최소화한다.

특히 매주 수요일을 '출장 없는 날'로 운영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급한 현안을 제외한 학교 방문을 자제함으로써 학기 초 교육 활동을 보호할 방침이다.

유정기 교육감 관련대행은 "교사가 수업 준비와 학생 이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환경을 만들어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신학기 교육과정 안정 기간 운영이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